

## 프랑스 지방선거 결과 및 향후 정국 전망

(‘14. 4. 1)

파리사무소

- ◆ '14.3.23 및 '14.3.30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집권 사회당이 참패를 기록하면서 우파 및 극우파가 약진하는 양상을 보임.
  -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정국 전환을 위해 대중적 인기가 높은 마뉴엘 발스 내무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임명하여 국면 전환을 시도
  - 금년 5월로 다가온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우파 및 극우파의 선전이 예상되는 상황임.

<자료원 : 현지 언론자료, 프랑스 내무부 발표자료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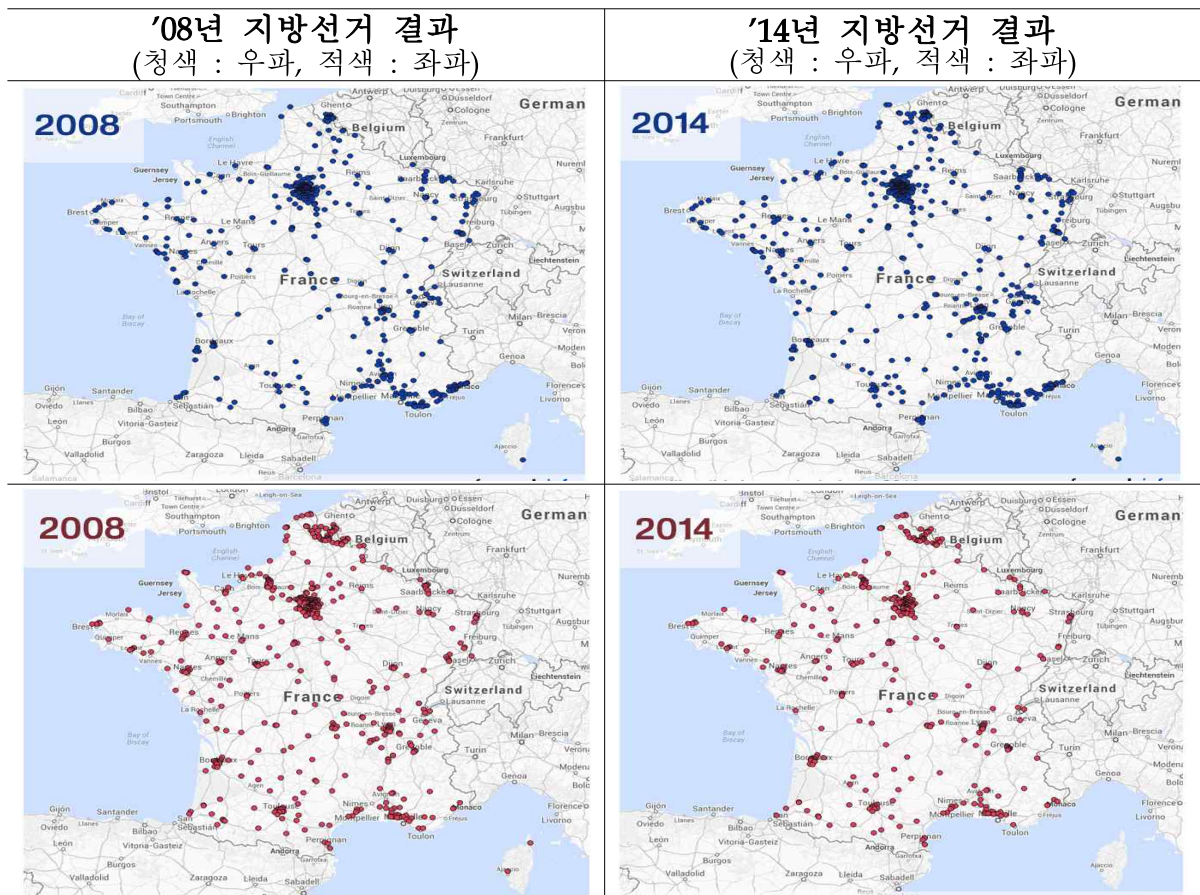
### 1 프랑스 지방선거 결과 (개요)

- 약 3만 6천여개의 지자체의 장(maire)과 지방의원(conseil municipal)을 선출하는 프랑스의 지방선거가 프랑스 전역에서 '14.3.23(일)과 '14.3.30(일), 양일에 걸쳐 실시되었음.
- (선거 결과 개요) 득표 비율로는 우파가 약 49%, 좌파가 약 42% 가량을 득표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극우파인 국민전선(FN)이 거의 10%에 가까운 득표를 기록하며 엄청난 약진을 기록함.
  - 우선, 인구가 10만명을 넘는 41개 프랑스 도시의 단체장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선거전 좌파(사회당, 유럽환경녹색당 및 기타 좌파)가 총 29개, 우파(대중운동연합 등)가 12개의 단체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 '14년 3월 지방선거로 세력판도가 역전되어 우파가 22개 도시, 좌파가 무려 10개 도시를 상실한 19개 도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구 10만명 이상 주요 도시의 선거 결과는 [참고 1] 참조]
  - 또한, 인구 9,000명 이상의 행정구역중 단체장이 바뀐 곳이 193개인데, 이중 175곳이 좌파에서 우파로, 10곳이 FN으로, 8곳이 좌파로 바뀌었음.

□ (좌파에게는 뼈아픈 패배) 단순히 숫적 패배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좌파에게 뼈아픈 패배가 많이 있었음.

- (1) 파리시 북동부의 센 생드니(Seine-Saint-Denis) 지역 內 보비니(Bobigny)市(1919년 이래 공산당에서 시장직을 독식해 왔음)에서 우파인 후보가 승리한 것을 비롯하여
- (2) 현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브르타뉴 지방의 쾨페흐(Quimper)시의 현직 시장인 '베르나르 뿌와냥' 시장이 우파 후보에게 패배하였고,
- (3) 1912년 이래 무려 102년 동안 좌파가 시장직을 수행해 왔던 프랑스 중부의 리무장(Limousin) 지역의 리모쥬(Limoges)市도 대중운동연합에게 시장 자리를 내어주었음.

- 일부 프랑스 언론들은 '(우파를 상징하는) 푸른 물결(Vague bleue)'이 프랑스 전역을 뒤덮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파의 승리를 자세하게 보도
- (지역적 분포) 지역적으로는 아래의 도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반이민 정서가 강한 남부 및 남동부 지역의 경우 우파가 약진한 가운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의 공업지대에서도 좌파가 상당수의 단체장직을 잃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 FRANCEINFO

([http://www.francetvinfo.fr/elections/municipales/municipales-regardez-la-vague-bleue-en-gifs-animes\\_564573.html](http://www.francetvinfo.fr/elections/municipales/municipales-regardez-la-vague-bleue-en-gifs-animes_564573.html))

□ (극우파의 선전) 극우파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이 금번 지방선거에서 거둔 성적은 상당히 좋은 편임.

○ 특히, 금번 지방선거에 임할 당시 단 한곳의 시장직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국민전선은 10개의 시장직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우파가 세력을 확장한 지역과 겹쳐지는 양상임.

<시장직에 국민전선 후보가 선출된 10개 지방자치 단체>



출처 : FRANCEINFO

○ 물론, 국민전선이 시장직을 차지한 도시의 대부분이 인구 1, 2만의 군소도시이나, 인구 5만이 넘는 중급규모 도시들도 2개(Fréjus, Béziers)나 포함되어 있고, 페피농(Perpignan)과 같은 몇몇 대도시에서도 1위 후보를 마지막까지 바짝 추격하는 등 상당한 존재감을 보였음.

○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결선투표가 끝난 3.30(일) 밤 민영방송인 TF1과 국영방송인 France2 등에 연달아 출연하여 ‘미디어가 우리 국민전선을 악마처럼 묘사하는 편파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였다. 우리는 프랑스의 좌-우 양대 정당 구도를 깼다’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음.

- 일부 언론에서도 국민전선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면서 지역적 단위로도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게 된 양상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국민전선(Front National)’을 이제 ‘지방전선(Front Local)’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다는 논평을 곁들이고 있음.

<참고>

**국민전선이 선전한데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쳤나?**

(1) 경기 침체시 통상적으로 극우파가 득세하는 정치적 현상이 프랑스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분석임.

- 특히, 10%를 넘어서는 실업률, 그 2배를 넘어서는 청년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은 사회당이 집권 2년에 들어서도록 동성 결혼 합법화와 같이 시민들의 실생활과 상관없는 이슈에 집착하면서 정작 일자리 창출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염증을 느꼈음.
- 단적인 예가 ‘일요일 근무 허용 여부’인데, 일부 사회당 중진들이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현재 프랑스는 관광, 음식료업 등 아주 예외적인 업종을 제외하고 일요일 휴무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하자, 일부 청년 노동자들이 ‘우리는 더 일하고 싶다’라며 노동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음.

(2) 마린 르펜의 아버지인 장 마리 르펜이 국민전선 대표를 맡고 있었던 과거에는 그의 반유대인적 언행(독일인의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의 발생 사실을 부정하여 프랑스내 유대인들을 경악케 하였음)을 포함한 다수의 기행과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으나,

- 그의 딸인 마린 르펜이 대표직에 오른 이후로는 ① 인종차별주의적 색채를 없애고, ② 프랑스의 실업률 상승 등 생활고의 이유를 이민 증가 및 EU의 지나친 간섭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메시지를 단순화하면서 ③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국민전선을 젊고 활기찬 ‘젊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어넣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임.
- 그녀는 미디어 정치에도 매우 능한 편으로서, TV나 라디오에 출연할 때마다 자신들은 ‘언론 편파 보도의 희생양’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소수민족 출신 또는 젊은 후보를 추천(금번 지방선거에서는 만 26세 후보를 추천하기도 함)하여 정당 이미지 변화에 나섰다.
- 그 덕분에 결선투표와 동시에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France2 주관으로 실시)에서는 ‘(금년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가) 내일 당장 열린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약 24%를 득표한 대중운동연합에 이어 무려 22%를 득표하면서 2등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음.

## 2    파리지 시장선거 결과

- **(아마조네스 전쟁)** 금번 선거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결은 좌-우파 대표적 여성정치인들이 맞대결을 벌였던 파리지 시장 선거였음.
- 사회당에서는 현직 파리지 부시장 역할을 약 13년간 수행해온 스페인 이민자 출신의 안 이달고(Anne Hidalgo) 후보가, 우파인 대중운동연합에서는 과거 사르코지 정권에서 교통환경부 장관을 지낸 나탈리 코시위스코-모리제(NKM) 후보가 출마하여 대결을 펼침



- 1차 투표시 NKM이 이달고 후보를 누르고 깜짝 1위를 하기도 했으나 2차 투표시 녹색당 등 좌파의 여타 표를 결집한 안 이달고 후보가 최종 승리

□ **(민생 공약으로 표심 확보)** 이달고 당선자는 파리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며 베르트랑 들라노에 시장을 약 13년간 보좌해온 인물로

- 파리를 대표하는 공용자전거(벨리브), 공용자동차(오토리브), 파리 플라쥬 등의 정책을 추진해온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의 중심 인물임
- 스페인에서 태어나 만 2세에 프랑스 리옹의 서민용 공공주택에서 프랑스 생활을 처음 시작한 이후 14세가 되어서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고, 타 정치인들과는 달리 그랑제콜이 아닌 평범한 4년제 지방대학을 졸업한 서민형 정치인임.
- 이에 비해 NKM 후보는 상원의원과 장관 등을 다수 배출한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프랑스 최고의 명문 그랑제콜인 에콜 폴리테크닉을 졸업하고 30대의 나이에 사르코지 정권에서 교통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엘리트 정치인이었음.
- 이달고 당선자는 기존에 추진했던 공공 교통기관 확대(공용자전거, 공용자동차에 이어 현재는 공용 오토바이 도입을 추진중)를 포함하여 선거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 유치원 확대 등의 생활 밀착형 공약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파리시의 '左靑右赤' 분포는 여전)** 한편, 전통적으로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파리의 서쪽과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동쪽은 각각 우파와 좌파가 구청장을 휩쓰는 양상을 또다시 보였음.

### <파리시 구청장 선거 결과>



### 3 프랑스 정부의 개각 관련 내용

- 좌파의 선거 패배가 확실해진 3.30(일) 밤, 장 마크 아에호 총리는 TV에 출연하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 ‘금번 패배는 정부의 패배이며, 국민들이 보내준 분명한 메시지를 경청할 것이다. 나 역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발언
  - 이어 3.31(월) 밤에는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도 TV에 출연하여 장 마크 아에호 총리 후임으로 대중적 인기가 높은 마뉴엘 발스(51세) 현 내무부 장관을 총리에 지명한다고 발표

#### <참고>

#### 마뉴엘 발스 신임 총리

- '6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생, 프랑스로 이주한 후 82년에 프랑스 국적 취득 [청년시절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스페인 사람이라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고백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스페인 출신에 대한 자각이 뚜렷하였으나, 비교적 늦은 나이인 만 20세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후 프랑스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현재는 에바 졸리(노르웨이 출신으로 프랑스 국적 취득, 현재 유럽의회 의원), 플뢰르 페를랭 장관 및 장 벵상 플라세 상원의원(각각 한국 출신으로 프랑스로 입양), 안 이달고 파리 시장(스페인 출신으로 프랑스 국적 취득) 등을 제치고 귀화인 출신 정치인으로는 가장 고위직인 총리에 오르게 되었음.]
- '11년 사회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5위에 그치면서 당시 유력주자로 꼽히던 마틴 오브리(금번 지방선거에서 릴(Lille)시의 시장에 재선됨)가 아닌 비교적 약체로 꼽히던 올랑드를 지지하는 일종의 정치적 도박을 벌였음
- 다수의 예상을 깨고 올랑드가 사회당 대선후보로 결정되고 이후 '12년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내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각종 범죄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면서 '좌파의 사르코지'라는 별명을 얻음
-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로서, 대중적 인기가 높고 특히, 올랑드의 좌파 정권중 가장 '右派스러운'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여 중도적 색채가 강한 정치인으로 평가됨.

- 극좌파에 속하는 '좌익전선'의 장 퓌 멜랑송 등은 올랑드 대통령이 우파적 성격이 강한 마뉴엘 발스 장관을 총리에 지명하자 '올랑드 대통령이 정치적 자살 행위를 했다'고 맹비난했고,
- 현재 사회당과 함께 연정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유럽환경녹색당 출신의 세실 듀플로 주택부 장관 등 2명의 장관은 마뉴엘 발스 총리 지명에 항의하여 사의를 표명한 상태

□ 그러나, 국민들의 뚜렷한 경고메시지를 들은 올란드 정부의 입장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의 '우향우'가 불가피한 상황

- 올란드 대통령도 이날 TV 담화를 통해 감세 추진, 사회보장 비용 등 이른바 cotisation의 축소 등을 약속하는 등 우파적 정책을 대거 포용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하게 표명

## 4 향후 정국 전망

□ 경기 침체와 이로 인한 복지 불안 등으로 인해 민심 이반이 일어난 이상 경제와 복지 분야 등을 담당하는 주요 각료의 교체가 이어질 전망

- 또한,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유럽환경녹색당 출신 각료 2명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이들의 후임에 대한 추가 인선도 곧 필요한 상황
-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친기업적 정책(감세 및 사회보장 비용 부담 축소)을 추진해오던 올란드 정부의 기존 행보가 더욱더 빨라질 전망이다

□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바로 5월로 닥친 유럽의회 선거로서,

- 현재의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프랑스 몫으로 주어진 유럽의회 의원 4명중 1명은 극우파에 속하는 국민전선 후보가 당선될 전망
- EU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바탕으로 주요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한 프랑스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이들 세력이 유럽의회에서 득세하게 될 경우 현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점점 거세지고 있는 극우 정치세력이 유럽의회에서 더 큰 힘을 얻게 될 전망

/끝/

# 참고 1

## 인구 10만 이상 도시(41개의 시장선거결과

Commune	현 직		선 거 결 과	
	현직 시장	정당	시장 당선자	정당
Aix-en-Provence	Maryse Joissains-Masini	UMP	Maryse Joissains-Masini	UMP
Amiens	Gilles Demailly*	PS	Brigitte Fouré	UDI
Angers	Frédéric Béatse	PS	Christophe Béchu	UMP
Argenteuil	Philippe Doucet	PS	Georges Mothron	UMP
Besançon	Jean-Louis Fousseret	PS	Jean-Louis Fousseret	PS
Bordeaux	Alain Juppé	UMP	Alain Juppé	UMP
Boulogne-Billancourt	Pierre-Christophe Baguet	UMP	Pierre-Christophe Baguet	UMP
Brest	François Cuillandre	PS	François Cuillandre	PS
Caen	Philippe Duron	PS	Joël Bruneau	UMP
Clermont-Ferrand	Serge Godard*	PS	Olivier Blanchi	PS
Dijon	François Rebsamen	PS	François Rebsamen	PS
Grenoble	Michel Destot*	PS	Éric Piolle	EELV
Le Havre	Édouard Philippe	UMP	Édouard Philippe	UMP
Lille	Martine Aubry	PS	Martine Aubry	PS
Limoges	Alain Rodet	PS	Émile-Roger Lombertie	UMP
Lyon	Gérard Collomb	PS	Gérard Collomb	PS
Le Mans	Jean-Claude Boulard	PS	Jean-Claude Boulard	PS
Marseille	Jean-Claude Gaudin	UMP	Jean-Claude Gaudin	UMP
Metz	Dominique Gros	PS	Dominique Gros	PS
Montpellier	Hélène Mandroux*	PS	Philippe Saurel	DVG
Montreuil	Dominique Voynet*	EELV	Patrice Bessac	PCF
Mulhouse	Jean Rottner	UMP	Jean Rottner	UMP
Nancy	André Rossinot*	UDI	Laurent Hénart	UDI
Nantes	Patrick Rimbart*	PS	Johanna Rolland	PS
Nice	Christian Estrosi	UMP	Christian Estrosi	UMP
Nîmes	Jean-Paul Fournier	UMP	Jean-Paul Fournier	UMP
Orléans	Serge Grouard	UMP	Serge Grouard	UMP
Paris	Bertrand Delanoë*	PS	Anne Hidalgo	PS
Perpignan	Jean-Marc Pujol	UMP	Jean-Marc Pujol	UMP
Reims	Adeline Hazan	PS	Arnaud Robinet	UMP
Rennes	Daniel Delaveau*	PS	Nathalie Appéré	PS
Rouen	Yvon Robert	PS	Yvon Robert	PS
Saint-Denis(La Réunion)	Gilbert Annette	PS	Gilbert Annette	PS
Saint-Denis(Seine-Saint-Denis)	Didier Paillard	PCF	Didier Paillard	PCF
Saint-Étienne	Maurice Vincent	PS	Gaël Perdriau	UMP
Saint-Paul	Huguette Bello	PLR	Joseph Sinimalé	UMP
Strasbourg	Roland Ries	PS	Roland Ries	PS
Toulon	Hubert Falco	UMP	Hubert Falco	UMP
Toulouse	Pierre Cohen	PS	Jean-Luc Moudenc	UMP
Tours	Jean Germain	PS	Serge Babary	UMP
Villeurbanne	Jean-Paul Bret	PS	Jean-Paul Bret	PS

주 : 프랑스의 정당은 그야말로 무지개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념적 편향성에 따라 좌부터 우까지를 대략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음. 물론 EELV 등의 경우 이념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참고로, 금번 지방선거에서 1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시장 당선자를 내지 못했으나, 상당히 선전한 국민전선(FN)의 경우 극우파라 할 수 있음.

정당	PCF (프랑스공산당)	EELV(유럽환 경녹색당)	PS (사회당, 좌파)	DVG (기타 좌파)	UDI(민주독립 연합, 중도우파)	UMP(대중운동 연합, 우파)
범례						